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회 회원사들(2010.10.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sup>2)</sup>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목 차 >

- 인도, Krishnapatnam항 피더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화물 처리할 예정 ----- 2
- Grup TCB,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컨테이너 1단계 완공 ----- 3
- 필리핀, Manila항 확장 계획 발표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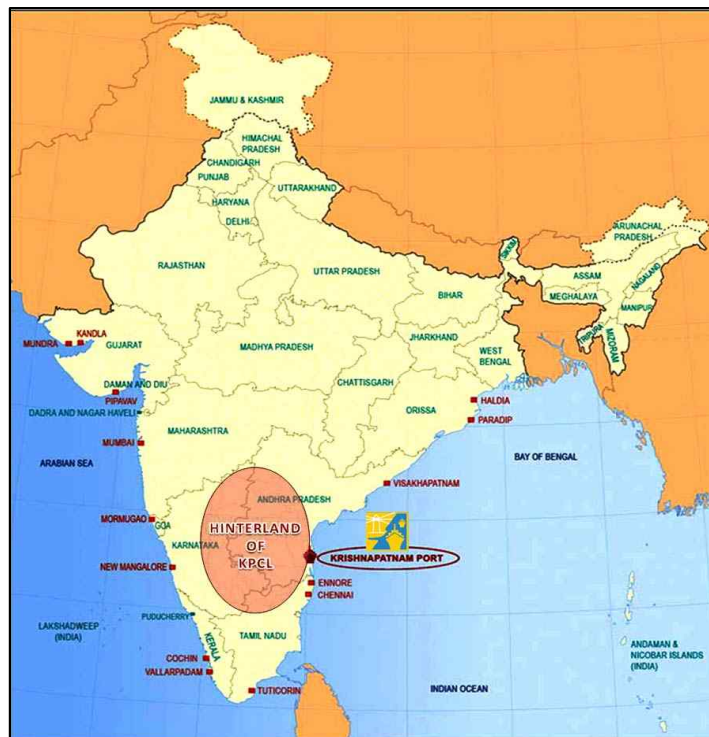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mailto: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mailto:jinjoo@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인도, Krishnapatnam항 피더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화물 처리할 예정

- Krishnapatnam항은 총 10선석, 수심 15.5m의 벌크화물(주로 석탄)을 취급하고 있으며, Krishnapatnam Port Company Ltd. (KPCL)가 운영하고 있음
- 이 항만 관계자는 Chennai항<sup>1)</sup>의 'Mega Container Port' 계획(약 4백만TEU 이상 처리하는 항만으로 확장)에 맞추어 Chennai항에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화물을 피더선을 통해 인도 경제특별구역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피더항 역할도 수행 할 계획이라고 밝힘
- Krishnapatnam항 운영사는 Chennai항에서 북쪽으로 약 200km로 떨어져 있어 피더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Chennai항과 약 25km 떨어진 곳에 Ennore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Ennore항 역시 최소 1백만TEU를 처리하는 항만으로의 확장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두 항만을 연결하는 피더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lt;Krishnapatnam항 위치 및 배후권역&gt;



자료 : CI-Online 2010. 10. 27, Krishnapatnam 항만운영사 홈페이지([www.krishnapatnamport.com](http://www.krishnapatnamport.com))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mailto:jinjoo@kmi.re.kr))

1) Chennai항만은 DP World와 PSA가 운영하고 있으며 약 2백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 Grup TCB,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컨테이너 1단계 완공

- 스페인 바르셀로나 기반의 터미널 운영사인 Grup TCB<sup>2)</sup>는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항만의 컨테이너 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상부시설을 설치하였음
- TCB는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의 30년간 양허계약을 보유한 CPIBSA (Complejo Portuario Industrial de Buenaventura, S.A.)의 지분 30%를 지난 2007년에 매입하고 운영사로 지정되었음
- 부에나벤투라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TCBuen)은 선석길이 438 m, 연간처리능력 26만 TEU 규모로, Grup TCB는 약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0월 25일 중국 ZPMC사로부터 포스트 파나막스 크레인 2기, RTGC 7기가 도착하였으며, 금년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부에나벤투라항은 콜롬비아에서 아시아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커피 수출의 80%를 처리하고 있음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 위치>



<TCBuen 2010년 7월 현재>



자료 : CI-Online, 2010.11.8. / Grup TCB 보도자료, 2010.10. 25. / <http://www.tcbuen.com>, 2010.11.8/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2) 스페인의 주요 터미널 운영사이자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체로서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취급하며, 바르셀로나, 카나리아 제도, 발렌시아, 히혼 (이상 스페인), 파라과아나(브라질), 하바나(쿠바), 프로그레소(멕시코), 부에나벤투라 (콜롬비아), 엔노르(인도) 및 넴루트베이(터키) 등 항만에서 13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히혼, 사라고사 등에서 철도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 필리핀, Manila항 확장 계획 발표

- Philippine Ports Authority(PPA)는 지난 11월 4일 마닐라항을 약 200헥타르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Pasig강과 마닐라항 남쪽 부두 사이를 매립 확장할 예정이며, 현재 항만 확장을 위한 도면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동 항만의 확장 계획은 기존 벌크 및 액체화물의 경로변경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최종적인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나 올해 말쯤 완성할 예정임
- 마닐라항 확장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방식은 Build-Operate-Transfer(BOT)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 입찰관련하여 자격요건, 금액,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의 계약 문제 등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이전에 검토 완료 후 입찰계획을 공표할 예정임

&lt;마닐라항 위치&gt;



&lt;마닐라항 확장 지역&gt;



자료 : Dredgingtoday 2010. 11. 5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mailto:jinjoo@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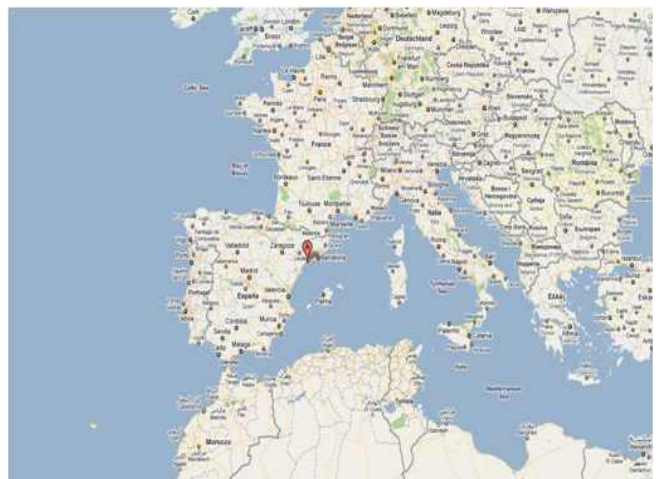
## □ DP World, 스페인 타라고나항 1단계 개장

- 지난 10월 27일 DP World는 스페인 타라고나(Tarragona)항의 1단계 확장사업을 마무리 짓고 개장하였음
  - 1단계 개장된 터미널은 전체 면적 212,000m<sup>2</sup>(5,000TGS, 200 reefers)의 규모로 3기의 수퍼포스트파나막스급 크레인과 5기의 파나막스급 크레인이 설치됨
- DP World의 스페인 타라고나항 개발은 2008년 7월 시작되어 2012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총 5천만 유로가 투자될 계획임
  - 사업은 2012년까지 연간 15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24.7ha 규모(6,000TGS, 200 reefers)의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임
- DP World의 스페인 타라고나항에 대한 투자는 2008년 7월 DP World가 스페인 타라고나항 운영사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매입한 지분은 60%이며, 나머지 40%는 이스라엘의 ZIM사가 매입
- 이번 1단계 타라고나 터미널 개장은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사인 DP World와 중동지역 최대 선사인 ZIM간에 이루어진 합자투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가짐

<타라고나터미널 건설 조감도>



<타라고나터미널 위치>



자료 : DP World 홈페이지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